

‘책의 확장, 책의 상상력’ 그 꿈을 펼치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출판계 최대 책문화 축제인 2009 서울국제도서전(SIBF2009)이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책의 확장, 책의 상상력’을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과 B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다시, 책에서 시작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영화, 미술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책의 중요성을 짚어보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도서전은 국내관과 국제관, 주빈국관, 북아트관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국내 330여개 출판사를 비롯해 세계 20여 개국 150여 개 출판사에서 출품된 각국의 다양한 책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해외출판인 대거 방한

국내 출판물의 저작권 수출과 국제출판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최초로 “전문가의 날”을 도입했다. 해외 출판인에게 서울국제도서전을 적극 알린 결과 올해는 태국의 난미북스와 일본의 아울스 에이전시를 비롯하여 한국 출판물의 저작권을 이미 구입하여 출판하였거나, 한국도서에 관심 있는 18개국 60여 개 출판사에서 도서전에 참여해 저작권 거래 미팅을 진행했다.

주빈국 일본, 인기작가 신작 발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빈국으로 선정된 중국은 중국작가 18명과 출판사 107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주빈국인 일본은

규모를 확장해, 일본의 우수출판사 230여 개 사가 참여해 약 2천800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이 자리에는 소설 <냉정과 열정사이>로 국내에서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작가 에쿠니 가오리가 직접 참석해 사인회를 열었다. 가오리는 <냉정과 열정사이>를 함께 쓴 츠치 히토나리와 또다시 공동집필한 신작 <좌안우안> 출간 기념 사인회를 비롯하여 국내 인기작가 정이현과 여성의 일과 사랑, 작품 세계 등 자유로운 주제로 대담회도 진행됐다. 만화가 가운데서는 올 초 국내에 기준표 신드롬을 몰고 온 <꽃보다 남자>(이하 꽃남)의 원작자 카미오 요코가 방한해 팬들을 만났다. 이밖에도 <밤의 피크닉>의 소설가 온다 리쿠, <퍼레이드>의 요시다 쇼이치, <우리 누나>의 아동작가 오카 슈조, <동경소년소녀>의 만화가 아이

하라 미키도 도서전을 찾았다.

일본 서예가의 서예시연, 기모노, 샤미센(일본 악기) 등 일본 문화체험과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700여 종의 아동도서전시 등 이벤트와 체험도 이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한·일 독서진흥 현황과 출판문화의 미래', '한·일 출판비즈니스 비전' 등 한·일 출판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화합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국내 인기작가와 팬과의 만남

일본 못지않게 주최국 한국의 유명 작가들도 이번 행사에 대거 참여했다. 소설가 은희경, 시인 최영미 등 비롯해 이 시대 최고의 입담꾼으로 손꼽히고 있는 <달콤한 나의 도시>의 정이현, <아내가 결혼했다>의 박현욱, <침이 고인다>의 김애란,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 낭독회를 마련했다.

만화가 가운데서는 한국의 대표 만화가 허영만이 일본판 <식객> 출간을 기념해 사인회를 개최했다. 어린이나 청소년 관객을 위해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공신' 강성태가 행사에 참석해 공부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330여개 출판사가 참여한 국내관은 일반 단행본관과 아동교육관으로 나뉘었다. 국내관 옆으로 자리하게 된 북아트관에서는 '제6회 서울국제북아트전' 이 도서전과 함께 열렸다. 9개국 42개사가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유명 북아트 작가들의 화려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문자를 주제로 하는 책들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 '아름다운 글자책' 과 이경석, 박선우, 지연준 등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팝업북 이벤트 '글자야, 나와라' 가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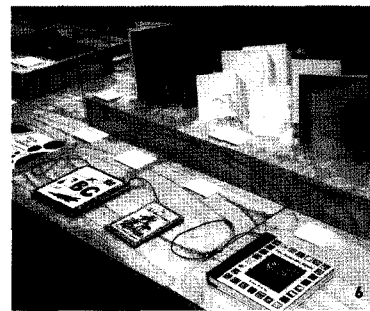
문화콘텐츠 풍부한 부대행사

2009 서울국제도서전은 부대행사로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풍부했다. 관람객을 가장 즐겁게 한 이벤트는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16편을 상영하는 '시네마북라이브러리' 전, 전시회 기간 동안 이벤트 공간에서 하루 2~4편씩 상영되었으며, 다빈치코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태양의 노래, 체인질링, 말리와 나 등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책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북 앤 페인팅' 전도 함께 열렸다.

이와 함께 지난달 볼로냐아동도서전 주빈국 행사의 일환으로 전시됐던 그림책 원화 64점과 도서 173종이 전시되었고, 서유라, 김은기, 전영근 등 신진 미술작가들이 책을 소재로 하는 미술작품 30여점을 선보였다. 1975년 고서점인 통문관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에 기증한 고서 100여권도 전시되었으며, '책으로 부터의 변화', '아름다운 책' 전시 등이 마련되었다. 부대행사로 극단 숨은그림이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를 공연했으며 임정진의 동화쓰기 특강, <마법천자문>그림 그리기 대회, 도전 골든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 2009 서울국제도서전 전경 2 개막행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백석기 회장을 비롯한 내외귀빈들이 이번 도서전 슬로건인 '다시, 책에서 시작한다'는 슬로건을 카드섹션형태로 선보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4 김대기 차관이 직지체험관에서 직접 직지체험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 한국의 그림책 코너 6-7이번 도서전에서는 '특별전' 과 '해외도서' 코너가 마련되었다.



직지체험관 운영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남봉익)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찬란했던 고인쇄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직지홍보관을 마련했다. 직지홍보관은 직지 영인본과 금속활자 주조과정을 설명하는 모형들을 전시했으며 금속활자판 인쇄를 시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출판문화의 미래

2009 서울국제도서전은 전시회 기간 동안 국내외 출판전문가들이 함께 출판문화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는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선 일반인들을 위한 행사로는 13일 열렸던 일본 유명 실용서 저자들의 '직장인 샐러던트와 자기계발' 세미나를 들 수 있다. 직장인들의 효과적인 자기계발 방식과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하고 관람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북스타트 세미나' 와 '일본의 그림책 문화 및 역사', '일본의 베스트셀러 경향과 유입, 동향, 전망' 등도 눈에 띄었다.

이 밖에 출판인과 작가 등을 위한 세미나로는 볼로냐대학 동양미술사 교수 조반니 페테르놀리가 진행하는 '유럽인이 말하는 한국예술서적', '한국출판물해외진출활성화 방안', '한·일 편집인교류 대 토론회' 등 다양한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